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남진규 (주)디피에스 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제작이 완료 되면 지상파 방송을 시작으로 케이블TV, IP-TV, 온라인 VOD로 이어지는 방송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지상파TV에서 방영된 작품들이 2차로 케이블TV 등 후순위 플랫폼에서 방송되는데 이렇게 1차 지상파에 걸리는 애니메이션 작품 수가 1년에 대략 26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26편의 작품이 한 해 한국 내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작품 편성도 2012년도부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을

지역과 뉴미디어

의무화한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방송법 10조2항)로 인해 지상파 4개사(KBS, MBC, SBS, EBS)가 방송국당 평균 약 7개의 작품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는 약 200여 곳이다. 이들 회사들이 한 해 26개 작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 기업 간에 엄청난 경쟁을 치러 내고 있다. 이러한 유통의 문제는 비단 애니메이션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 분야에 지역 기업과 인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제작비용을 마련한다 해도 결국 유통의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유통에 대한 인력 네트워크와 유통 경험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역 디스카운트’도 방송국 판권 구매 담당자들의 선택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콘텐츠산업 관련, 지역의 큰 고민이 바로 콘텐츠 기업의 부재, 그로 인해 지역에

서 육성된 인력의 지역 내 취업 창구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콘텐츠 산업의 미래 불투명으로 이어진다.

이제 뉴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뉴미디어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토대로 광고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플랫폼인 것이다.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플랫폼 유튜브(You-Tube)의 사례를 하나 언급하겠다. 미국의 평범한 트럭 기사 버틀러는 재미삼아 자신의 일상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한다.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버틀러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유명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 시작하자 버틀러는 주변에서 홈페이지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탐색하고 메이커 스튜디오를 설립한다.

메이커 스튜디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홈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회사로 월간 조회 수 55억 뷰 이상을 올리는 회사이다.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탑재된 디즈니는 결국 메이커 스튜디오를 지난해 3월 5억 달러에 인수한다.

물론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회사도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여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고민하였으나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에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지자체 콘텐츠 산업 예산을 지역 콘텐츠의 유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동의 플랫폼 채널 구축과 콘텐츠 개발 지원·인력 양성 등 지역의 기업과 1인 창작자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역 콘텐츠 업계에도 선이디어 개발·산업화·인력 확보 등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칼럼

노인건강 비법 따로 없다



유대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노화방지와 면역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 정성모(70)씨는 최근 국내외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호르몬 치료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정씨는 본인이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은 자칫 부작용 위험이 큰 민간요법이나 각종 주사요법에 혹하기 쉽다.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필수 예방접종을 꼭 챙기고 술이나 담배 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멀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0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는 성장

호르몬(HGH)이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담은 논문이 게재됐다. 성장호르몬 투약자들에게서 최대 20년까지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거의 모든 세포가 회복되는 현상도 관찰됐다는 것이다. 특히 면역체계가 복원돼 심장마비, 뇌졸중 등 중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 현재 각국의 연구자들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나 이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그 연구가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양의 인위적인 성장호르몬 투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신체자율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약물 투여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고 보다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높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나 각종 노화방지 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사제나 치료제로써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의료계 공통적인 의견이다.

특별한 ‘묘약’이나 ‘비법’을 찾기보다는 필수 예방접종을 꼭 챙기고, 담배나 술과 같은 위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흡연율은 23.3%였다. 전년대비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관리를 요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영국의 학술지 BMC Geriatrics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흡연하는 노인은 흡연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치매 발생 위험이 79%나 높다. 80세 이상 노인이 흡연을 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변성 발생 비율도 5배 이상 높아진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흡연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금연 의지도 크지 않아 금연을 고려한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흡연과 연관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금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개선해야 한다. 금연을 원하는 노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은 물론 혈관계질환이나 만성염증성 질환에는 흡연이 합병증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심리상담 등 부가적인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면역체계가 떨어진 노인은 약화된 면역력으로 인해 감염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노인의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요소가 바로 예방접종이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을 앓고 난 후 얻어 진 면역은 평생 지속되지만, 예방접종으로 만들어진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과거 영유아를 중심으로 설계돼 왔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에 무리가 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질환자들의 경우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질병을 낮게 하거나 젊음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방접종을 놓치는 경우 감염병 발생과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나 건강에 맞는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

기고

국밥 데이(Day)를 아십니까?



안웅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에서 나온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월 3일 삼겹살 먹는 날, 5월 2일 오리고기 먹는 날 등과 함께 ‘착한 소비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커피 한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국밥은 서민 먹을거리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국밥을 파는 곳은 대부분 전통시장 또는 소규모 음식점이기에 서민경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재료인 육류의 소비 증가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증진 및 쌀 소비 촉진 그리고 각종 채소들의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8일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국 동료와 함께 서구 양동시장과 남구 무등시장, 북구 말바우시장, 광산구 송정시장을 찾아 국밥데이 행사를 치렀다. 또, 온누리(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해 생필품도 구입하는 등 재래시장에서 장도 봤다.

국밥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한가지로 소고기나 돼

지고기의 어떤 부위를 사용해서 국물을 우려냈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국밥은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

조리시설이 현재처럼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매 식사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다. 술에 국을 한가득 끓여놓고 국물의 온기를 빌려 찬밥을 데워줄 수 있는 국밥이 인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단시간 내에 술을 따서 먹게 되는 국밥요리가 주막을 중심으로 유행 변창했는데, 이는 여행자가 과거시험 등의 임무를 보러가는 사람들이 주막에 들러 간단히 요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별로 어느 부위를 주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가 자주 찾는 음식점 중 한 곳은 40여년 전 창업 당시부터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하루 삼 백 그릇 이상은 팔지 않았다 고 한다. 더 많은 이익을 쫓기보다는 정성을 다해 삼백 그릇만을 파는 것이 창업자

자신과 손님을 모두에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높은 단가에도 국산 무농약 콩나물을 사용하고, 고기를 삶아 때나 육수를 달일 때에도 항상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

다른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내가, 혹은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좋은 품질에 신선도가 높은 제철에 나는 재료로 만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듯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이 담긴 국밥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인기가 넘치는 재래시장에서 열근하게 한 그릇 해치우고 나면 일상생활에 지친 몸

에 보약 한 첩을 먹은 것처럼 몸에 힘이 솟을 것이다. 오늘 하루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랜 기간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서민들의 음식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어떨까?

가슴에 콩 나듯 하긴 하지만, 어쩌다 켈렉터들의 눈에 들어 생계를 넘겨줘야 하는 작가가 있기 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는 재능을 알아주는 관객을 만나지 못해 늘 가난에 짓눌린다.

알못계도 공평은 작가들에게는 창작 원천이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종섭 화백이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도, 오늘날 우리가 고흐의 자화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흐는 모델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곤 했다.

최근 만난 신호운(40) 작가. 그는 뼈에 사무치도록 곤궁했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전업작가가 됐지만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쪼들렸다. 애듯한 정을 나눴던 사촌 누이가 별안간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그의 창작세계는 180도 바뀌었다.

누이에게 ‘뭐라도 해 줘야겠다’는 마음에 방안에 있던 책을 찢어 그 종이로 수의를 만들었다. 그는 “동생이 가는 마당에 수의라도 해 입혔으면 하는 마음이 었다”고 회상했다. 내친 김에 한지로 수의를 만들어 전시회를 열었다. 의외의

社說

분변 오염 계란 빵 유통 위생당국은 뭘 했나

박근혜 정부가 척척 대상으로 지목한 ‘4대 악(惡)’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량 식품 유통이다. 하지만 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전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불량 식품 퇴치를 강조해도 돈에 눈이 먼 식품 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야는 날마다 대하는 식당에서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중국산 저질 콩 42t이 수입업자들에 의해 국산으로 둔갑한 뒤 시중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뒤늦게 세관 당국에 파악되기도 했다.

최근 광주 남부경찰에 적발된 불량 계란 유통 사건은 눈앞의 이익에 양심을 파는 업자의 비뚤어진 상도덕은 물론 당국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나주·함평 등지의 양계장에서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해야 하는 계란

150만 개(914t·23억 원 상당)가 예상 형태로 빵과 과자에 첨가돼 전국으로 유통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압수한 계란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기관인 것은 불량 계란 가공 업체가 관련 허가까지 받았으며 품질 검사 때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은 날마다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당국은 업자들만 제재할 게 아니라 위생 감독 부서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감아줬다면 같이 처벌해야 마땅하다.

불량 식품 사범을 원천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한층 촘촘한 방지 시스템을 갖춰 식품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업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자발적인 노력도 유도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의 ‘서울 갤러리’ 개설 기대된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중앙 진출이 앞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문화재단이 최근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서울에 새로운 갤러리를 개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광주 작가들에 비해 ‘서울 입성’의 기회가 적었던 전남 지역 작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미 서울 시간동에 ‘갤러리 GMA’(Gwangju Museum of Art)를 운영하고 있다. 시가 서울에 분관을 오픈한 것은 작고한 오승운 화백과 관련이 있다. 오화백은 지난 2006년 모 화집 제작업체와 초대전과 화집 발간을 계약했지만 업체가 약속을 어기지 심적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 작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 2008년 인사동에 지역 공립미술관으로는 최초로 분관을 개관한 것이

다. 서울 분관은 광주 작가가 개인전을 열 경우 일반 갤러리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대관료를 받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광주·전남의 서울갤러리 운영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적 역량을 중앙 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서울 갤러리 개설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지난 2012년 시간동의 한 건물 2층으로 이전한 분관 ‘갤러리 GMA’는 접근성이 떨어져 고층에 잘 띄지 않아 지역 작가들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규모도 협소하고 높이도 낮아 대형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두 기관은 서울 갤러리가 지역 작가들의 실질적인 전진기지가 되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예산 확보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화가들에게 가난은 숙명과도 같다. 가슴에 콩 나듯 하긴 하지만, 어쩌다 켈렉터들의 눈에 들어 생계를 넘겨줘야 하는 작가가 있기 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는 재능을 알아주는 관객을 만나지 못해 늘 가난에 짓눌린다.

알못계도 공평은 작가들에게는 창작 원천이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종섭 화백이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도, 오늘날 우리가 고흐의 자화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흐는 모델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곤 했다.

최근 만난 신호운(40) 작가. 그는 뼈에 사무치도록 곤궁했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전업작가가 됐지만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쪼들렸다. 애듯한 정을 나눴던 사촌 누이가 별안간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그의 창작세계는 180도 바뀌었다.

누이에게 ‘뭐라도 해 줘야겠다’는 마음에 방안에 있던 책을 찢어 그 종이로 수의를 만들었다. 그는 “동생이 가는 마당에 수의라도 해 입혔으면 하는 마음이 었다”고 회상했다. 내친 김에 한지로 수의를 만들어 전시회를 열었다. 의외의

호평을 받은 신 작가는 이후 ‘중이 입체 조형 작가’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난한 오빠에게 동생이 큰 선물을 준 셈이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1월 만났던 이정기(41) 작가도 잊을 수 없다. 돼지 저금통에 겨울의 깨진 유리 조각을 붙여 만든 작품 ‘돼지 저금통’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는 우연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야외 주차장 한 귀퉁이에 버려진 채 비를 맞고 있는 돼지 저금통과 조우했다. 누군가 배에 칼집을 넣어 모아 두었던 동전을

빼내고 버린 것이었다. 작가는 그곳에서 ‘죽어 가는’ 돼지 저금통을 봤다. “자신과 처지

가 같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힘들 때 돼지 저금통을 꺼서 끼니를 때운 자신의 기억이 오버랩됐음은 물론이다. 그에게 ‘돼지 저금통’은 역시 남부함이 선 선물이다.

S작가는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3곳을 전전한다. 가족 생계를 꾸리기 위해 주야로 일하고 새벽에야 창작에 들어가는 ‘사투(死闘)가 곧 일상(日常)’이다. 예술의 도시에서 창작의 육박마저 겪던 채 버림으로 내몰리는 작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칭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